

로컬스토리

군산대학교 이정문 시설과장
우수공무원 선정 대통령상 수상

군산대학교 이정문 시설과장(사진)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우수공무원 포상은 국정 각 분야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업무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해 이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정문 과장은 1979년도 4년제 대학수학에 따른 군산대학교의 현 캠퍼스 이전 계획과 부지매입 등 캠퍼스 개발의 실무자로 근무했고, 국립종합대학 최초로 '남강' 없는 캠퍼스를 기획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케 했으며, 지자체 지원 및 지역주민의 대학사랑발전 기금등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등 군산대학교 교육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해 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식품위생과 한명란 계장
정부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익산시 식품위생과 한명란 계장(사진)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9월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명란 계장은 정현을 시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명란 계장은 보건·위생 분야에 근무하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를 만들어 아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고,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익산시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익산=정왕일기자

군산시,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군산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2010, 파워포인트2013, 엑셀2013, 이미지편집, 동영상저장도구활용, 디지털생활, 스마트폰활용 등 9개 과정으로 45회를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총 1300명이다. 각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1주에서 4주 과정으로 마련되어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교육장소는 군산시청 8층 전산교육장과 수송동 시립도서관 4층 전산교육장 등 총 2개소에서 동시 운영하며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신청접수는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nsan.go.kr, edu.gnsan.go.kr)에서 가능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자 대상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문해교육

군산시가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단순 한글교육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해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초등학생 인성 과정보과 예비중학생 반 문해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문자 전송, 동영상 촬영, 어플 사용 등 2G폰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해학습자 뿐만 아니라 1세대 어르신들이 알기 쉽도록 맞춤형 스마트폰 사용 매뉴얼을 제작·보편화하여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김 가공시설 신축 절실

전국 김 가공공장 가동 중단 원산지 가격 급락으로 어민들 피해 속출

30년 만에 김 생산 어가들이 호황을 맞았지만 김 가공업체들이 일제히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군산지역에는 김 가공공장이 없다보니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어도 어민들이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으로 군산지역에 김 가공시설 신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김가공자협회 업무자담에 따라 전국 김 가공·생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서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김 가공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실정으로 김 양식 어민들은 3일 동안 출하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1량(106kg)에 20만원을 웃돌던 원산지 가격이 9만원~10만원으로 급락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에서 김 가공업체들이 또 다시 가동을 중단 할 것으로 알려져 고군산지역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는 원산지 김 값이 유례없는 고공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유통과정의 소비자 판매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 가공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 김 양식 어민들은 "지난 2일과 3일은 휴일이 아니더라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은 김 납품 물량 조절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가공업체들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 민의 풍년인데 김 가공업체들이 본인들의 수익만 챙기려는 행위로 인해 김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전국김가공자협회는 "신정과 구정 연휴는 그동안 계속 휴일로 지정해 왔다"며 "이번 휴일도 전국 김 양식 어민과 각 지역 생산자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지역 수산 관계자들은 군산지역에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군산만의 특화된 김 브랜드를 생산·가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시도와 선유도, 개야도 등 고군산해양연의 김 양식장

규모는 142어가(3400ha)이며, 이 지역에서 출하되는 김은 전국김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김 가공공장이 없다 보니 전량 인근 서천군과 전라남도에서 가공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김 가공공장이 없는 군산지역 어민들의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김 가공시설 적지조사를 통한 부지 확보 및 예산 지원에 앞장서 군산만의 특화된 김 브랜드 생산·가공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한국김생산자민연합회군산지회(회장 이성복)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군산만의 김 가공시설이 갖춰지면, 이번 같은 갑질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군산지역의 연간 김 생산량은 2015년 1만388톤, 2016년에는 2만1088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대학을 빛낸 5인 청동부조동판 제막식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을 빛낸 인물 5인을 선정해 청동부조 동판을 제작하고 지난 6일 학생지원관 1층 로비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원광대는 2015년 10월부터 원광대를 빛낸 인물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정희섭(1920~1987), 백암 전 원 배(1903~1984), 아산 김인용(1922~2015), 여산 류병덕(1930~2007), 안산 김재백(1932~2009) 등 5인을 선정했으며, 미술대학 김광재, 정진환 교수를 중심으로 6개월에 걸쳐 청동부조동판을 제작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유가족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이 참석해 학교 발전의 초석을 닦은 선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대학 발전을 위한 합심합력을 다짐했다. 김도중 총장은 "5인의 업적은 우리 원광인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를 빛낸 5인에 선정된 정희섭 전 보사부장관은 기독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 본인 소유의 씨그레 이브 병원을 원불교 종립학교인 원광대에 무상 기증하여 원광대학병원의 토대를 마련해 의료인 양성과 더불어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됐으며, 전원배 교수는 한국 사상계의 거두로서 원광대 출범 시 부임하여 한국 서양철학 연구의 기틀을 세웠다.

또한 김인용 처장은 근검절약 정신

으로 학교 살림을 도맡아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의과대학과 원광대 학생원 설립을 이루어내는 등 원광대가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공역을 쌓았으며, 원광대 졸업 1기생인 류병덕 교수는 개혁자적 사명으로 원불교 사상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한국 사회에 원불교 사상을 재인식하게 하는데 큰 발자취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김재백 교수는 익산병원과 원광제약을 설립해 신약을 개발하는 등 지역 의료복지와 약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사재를 출연해 후학 양성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에 있다'는 신념을 실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재와 같은 사고나 수퍼문으로 인한 해일침수 발생 상황을 촬영해 송출한 생생한 영상을 보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관리 협업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

군산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담당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군산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체납세 징수율도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 징수 방안이다.

이번 지원은 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채산 처분 등으로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재기여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인

민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읍면동장 현장순찰 및 읍면동 건의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 장기화라는 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들의 시장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위기를 기회로 하나 된 군산'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16일부터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면허세 3만5700건에 대하여 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신고, 등록, 지정, 정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영양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붉은 닭의 해, 닭고기 로 새해 인사하세요"
하림, 5만원 미만 실속형 선물세트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정유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에 선정한 베스트셀러 닭고기 제품들로 실속 있게 구성된 '2017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고객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제품 위주로, 올해 새롭게 출시된 양념육과 간편식을 비롯해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로 구성됐다.

먼저, 2016년 고객선정 베스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양념육 세트는 가정이나 야외에서 한끼 식사나 밥반찬, 술안주 등 온 가족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추천식 순살닭갈비(매운맛/순한맛)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닭갈비 ▲포장마차식 빼어난 양념닭발 ▲포장마차식 양념근위 등이 포함됐다.

최근 가정간편식(HMR) 성장세에 힘입어 간편한 홈메이드 세트도 새롭게 선보였다.

하림이 올해 처음 지역별 시리트로 선보인 ▲홈메이드 안동식 찜닭 ▲홈메이드 춘천식 닭갈비(매운맛/순한맛)를 비롯해, 집에서 손쉬운 조리 가능한 ▲홈메이드 차킨(오리지널)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제품이 양념이나 반죽에 버무려 있거나 동봉되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선물세트도 만나볼 수 있다.

하림의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은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식품안전관

리인증(HACCP)을 받은 국내 최우수 축산물 브랜드다.

'자연실록' 냉장 또는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자연실록 통닭을 비롯해 절단육, 복채, 절단육, 가슴살 등 부위별 제품과 함께, 국내산 황기도 포함되어 있어 보양식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육방' 열풍으로 한층 가다 로워진 소비자 입맛을 고려해 진공포장 상태로 저온가열해 편리하지 않고 촉촉한 '자연실록 수비드 닭가슴살 세트'도 있다.

(주)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올해는 양념육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5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대거 포진한 가운데, 건강을 생각하는 양념이나 반죽에 버무려 있거나 동봉되어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선물세트도 만나볼 수 있다.

하림의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은 사료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식품안전관

/익산=정왕일기자

재난현장 대응·상황관리 역량강화 사업 선정

군산시, 도내 시군 중 남원·완주·순창과 함께

군산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상황관리 역량강화에 의지가 높은 4개 시·군(군산, 남원, 완주, 순창)에 선정됐다.

이번 역량강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들은 재난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 역량강화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최종 2개 시군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정비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매뉴얼에 반영했으며, ICT시대에 걸맞은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구축한 이동식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은 처리에 앞서 카메라를 장착하여 재난현장을 이동하며 촬영을 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재와 같은

사고나 수퍼문으로 인한 해일침수 발생 상황을 촬영해 송출한 생생한 영상을 보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관리 협업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시스템을 개선 보강하여 재난에 대비한 결과 2012년 8·13 수해 이후에는 큰 재난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에서 5개 광역자치단체와 65개 기초자치단체가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지자체간 상황관리 개선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역량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이동식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보강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지방세제 지원

'투트랙 방식' 체납세 징수

군산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영세사업자가 지방세를 담당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군산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체납세 징수율도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 징수 방안이다.

이번 지원은 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채산 처분 등으로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재기여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인

관내 개인사업자 중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산시청 징수과를 방문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변호관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되며 분납계획서에 의해 분납을 이행하면 된다.

또한 장기 압류되어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일제조사를 통해 압류 해제처리하고, 압류 처분 중 일정 차액(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인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